

#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는 소프트파워의 영향력 탐색: 올림픽개최지 선정 사례 실증분석\*

이광훈\*\*

김권식\*\*\*

행정학·정책학의 주요 관심 분야인 거버넌스 연구는 연구대상 측면에서 주로 국내적 차원에 한정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정치 차원의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러한 정치 역학을 추동하는 권력의 새로운 차원의 특성에 관한 인과관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탈냉전기 올림픽 개최지 선정결과에 유치지원국의 소프트파워가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Lee & Chappelet (2012)의 후속연구로서, 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로 발전시키는 한편 분석모형을 정교화하고 분석자료를 확장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개최경쟁국들의 하드파워를 통제할 상태에서 소프트파워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국제스포츠 분야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소프트파워의 존재와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 소프트파워 활용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글로벌 '소프트'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글로벌 거버넌스, 소프트파워, 올림픽

\* 본 논문은 2013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로잔대학교 행정학박사. 숭실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 강사(swiss@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kskim87@snu.ac.kr).

## I. 들어가며

탈냉전 이후 글로벌 세계정치 환경 속에서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국제 NGO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행위자, 즉 비국가행위주체들(non-state actors)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국제관계 분석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정치의 장에서도 여전히 ‘정부 없는 통치(global governance without world government)’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Benz, 2004; Rosenau & Czempiel, 1992). 그러나 행정학·정책학의 주요 관심 영역인 거버넌스 및 제도 연구는 그간 주로 국내적 차원에 한정되어 왔다(김선혁, 2004). 이에 국제(inter-national) 혹은 세계적(global)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적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및 작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차원의 권력적 특성이 새로운 학문적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국제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들은 Joseph Nye에 의하면 “하드파워”에 초점을 맞추어온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체제경쟁이 종식되고 국제관계가 다양한 수준에서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탈냉전기에는 국제관계에서 “소프트파워(Nye, 1990; 2002; 2004; 2008a; 2008b; 2011)” 요인에 의해 정치적·경제적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고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sup>1)</sup> 실제로 세계정치 혹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소프트파워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며(Kroenig et al., 2010), 양적 접근에 의한 연구 역시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소프트파워 개념이 보다 엄밀한 이론적 지위를 부여받고, 국가전략 수립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념의 정교화 및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현실 국제관계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소프트파워의 영향

1) Nye (2004)에 의하면 하드파워란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강제적 혹은 유인적인 권력 요소를 의미한다. 반면에 소프트파워란 도덕적·문화적 가치 측면의 우월성에 기반하여 설득 혹은 매력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력 원천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논의함.

력에 대한 실증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sup>2)</sup>

국가간 경쟁에 있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사례연구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질적 연구들은 특정한 사건, 역사적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에는 유리하나 분석결과와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ee & Chappelet (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방법론에 기초하여, 하드파워 측면을 통제된 상태에서 소프트파워의 진정한 영향력을 포착해 내기 위한 방법론적 시도를 하고 있다. 즉 올림픽 개최지 경쟁에 참여한 국가들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패널회귀분석모형으로 분석하는 양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은 Lee & Chappelet (2012)의 올림픽 개최경쟁에 미치는 소프트파워에 관한 분석의 후속연구로서, 기존 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글로벌거버넌스 논의로 발전시키는 한편 분석모형을 정교화하고 분석자료를 확장하여 분석결과와 강건성을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특성 및 소프트파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의 개최권 배분 메커니즘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3장에서는 분석모형, 자료 및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을 고려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유형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2) 예컨대 글로벌 스포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현상과 이것이 국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제들은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학계의 관점 및 분석틀이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Cha, 2009:1584),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 탐구는 세계정치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 1.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성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기존의 주권국가의 정부 중심의 권위(authority)의 누수, 이른바 권력분산(power diffusion)이 발생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sup>3)</sup>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국제관계에서 주요한 행위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탈냉전 이후 글로벌 세계정치 환경에서는 기존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많은 정책이슈들이 지역적이고 지방적이며(local and regional) 동시에 초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수반하는 경제적 이슈나 개발, 환경, 인권, 여성 등의 새로운 사회적 이슈 역시 중요한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심적·다층적인(multi-centric & multi-level) 의사결정이 불가피한데 이는 한 국가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타국과의 협력, 나아가 비국가행위자들의 참여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Rittberger, 2001:30). 특히 상호의존적 복잡성을 띠는 글로벌 차원의 이슈<sup>4)</sup>에 있어서는 다양한 비정부조직들이 때로는 정부에 갈음하는 권한과 발언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협력과 협상에 의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이슈들을 단일주권에 기반한 권위가 아닌, 타 정부나 정부 이외의 제도 및 조직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련의 규범, 규칙 혹은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학문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3) 국제적이란 개념이 근대 이후 수립된 국민국가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행위주체라는 생각 위에서 발전된 개념인 데 반해, 글로벌이란 개념은 주권국가를 넘어서는 이슈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국가 이외에도 비정부행위주체, 초국가행위주체 등 다차원적 주체들간의 교류와 역할이 중시되며 관계의 지리적 한계가 국가를 초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개념이다(유현석, 2006: 333).

4) 환경, 보건이나 인권, 인도적 구호, 젠더 및 아동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 예이다.

영향력이 개별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속에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개별적 이익과 보편적 가치 사이에 내재된 갈등의 상호 조정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로서 유엔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 (UN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5: 4)는 “거버넌스란 공공 및 사적 개인들과 제도들이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이해조정적이고 협력적인 다양한 방법들의 총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는 공식적 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비공식적인 관행들도 포함되며, 이를 통하여 갈등적인 이해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인 행동이 취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기존 연구자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론적, 규범적, 실천적 전통과 전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구체적인 구성 원리 및 특징들을 지니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화순, 2007:12). 기존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적 요소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세계정치의 다층적 수준의 행위자들간 희소한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이해조정적이고 협력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생성·유지·변화시키는, 유·무형 혹은 공식적·비공식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총합”

<표 1>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문헌	개념 정의
Young(1994)	독립적 행위자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수립·운영하는 것
UN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1995)	개인과 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공동 관심사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의 총화로서, 상호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
Rossenau(1995)	국가 횡적 형태에서 국가 아래 수준의 행위자, 국가중심적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 거시적에서 미시적, 비공식적 혹은 제도화, 협력적인 것 또는 갈등적 관계 등의 광범위한 연속성을 특징으로 다양한 방향으로의 권위의 소재가 재조정되는 경향
Gordenker and Weiss(1996)	중양집권적 권위의 부재 상황에서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들과 다른 행위자들 사이의 공동 목표와 실천을 추구하는 공조적 활동 및 제도
Knight(1999)	사회정치적 이슈, 군사안보문제 등 개별국가들의 영역을 초월한 무수한 초국가적 딜레마들의 해결을 위한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의 합의를 조정하려는 노력
Fraser-Moleketi(2005)	지방적, 국내적, 지역적, 초국가적인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의 통치 과정 및 활동
Weiss and Thakur(2006)	개별국가들의 해결능력을 넘어서는 세계 차원의 문제들을 인지, 이해, 해결하려는 집합적 노력으로서, 국가, 시장, 시민, 정부간 및 비정부간 조직들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 메커니즘, 관계 및 과정의 총체
서창록·이연호·곽진영(2002)	정부간이나 국가간 협조 외에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세계 자본시장, 세계 언론매체 등 다양한 세력들이 자발적 상호협조 체제를 구성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결정과정
유현석(2006)	지구적 문제들을 관리하는 과정, 방법, 그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메커니즘)

## 2. 소프트파워의 개념 및 특성

본 논문의 개념정의와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세계정치 차원에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때,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권력의 속성이 자원배분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인과경로에 관한 유력한 이론적 가설로서 Joseph Nye가 제시한 소프트파워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여 년 전 Nye(1990)에 의해 주창된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은 한 국가가 강제

력(coercion)이나 유인(incentive)보다는 설득이나 매력과 같은 수단을 통해 다른 나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Nye, 1990). 즉 소프트파워란 “타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도 원하도록 하는 능력(Nye, 2002:9)” 혹은 “타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Nye, 2004:5)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국가관계에 적용하면 “국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력이나 유인보다는 매력 혹은 호감도를 이용하는 것”(Nye, 2004:10)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Nye(2004)는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게임의 규칙 하에서 한 국가의 군사적·경제적 권력인 하드파워와 대비되는 무형적 요소(문화, 이념, 가치체계, 제도, 신뢰, 공공외교 등)를 국제관계에서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Nye(2004)가 문화적 요인, 정치적 가치 및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갖는 대외 정책 등의 요소들을 소프트파워의 주요 원천으로서 제시한 이래<sup>5)</sup>, 대다수의 소프트파워 관련 논의는 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별 행위자 수준의 분석에 치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파워의 개념적 분석수준을 개별 행위자 수준과 그보다 상위의 차원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인 한 국가의 권력 원천의 일종으로서, 어떤 국가가 갖는 특성 혹은 자원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력 원천은 다양한 방식의 조합에 의해 행위자의 전략 수립과 집행의 근원이 될 수 있다(Nye, 2004). 이러한 전략은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 중심의 세계정치질서를 넘어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국가들(middle powers)<sup>6)</sup>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ye(2008)가 착안한 권력의 두 번째 얼굴<sup>7)</sup>으로서의 소프트파워 개념

5) Nye(2004)에 의하면 민주주의, 정의, 평등, 투명성 등의 정치적 가치는 타국 국민의 선호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한 나라의 정통성(legitimacy)이나 대외적 활동에 있어서의 도덕적 권위를 담지한 외교정책 역시 그 나라에 대한 타국 국민들의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6) 중견국가라는 용어의 개념에 관해서는 Cooper(1997)이나 김치욱(2009)을 참조.

7) 이에 관하여 Nye는 Bachrach & Baratz(1963)가 언급한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소프트파워 논의에서 적극 수용하여 세계정치가 있어서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에 기반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작용하는 구조적 차원의 영향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드파워와는 달리 소프트파워 자원들은 상대방의 수용여부에 그 영향력의 정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국의 소프트파워는 단순히 국내 정책이나 국가간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 협정 및 초국가적 기구에서의 참여<sup>8)</sup>를 통해서도 발휘될 수 있다(Li, 2009:225).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주권국가 중심의 권위의 소재가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까지 분산됨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이 행위자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휘될 수 있다. 예컨대 투명성 혹은 반부패 규범, 환경규범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등은 세계정치 과정 속에서, 타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통 기준에 의해 주권국가 외부로부터 부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문·불문법적 규범들의 준수 여부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성원들에게 규범적 압력 혹은 제도적 유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9)</sup>

이처럼 행위자의 자원으로로서의 권력 개념과, 구조적 차원의 영향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소프트파워 개념의 이러한 중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드파워가 약한 국가가 실제로 소프트파워 전략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원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개별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과 행위자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원의 변수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Nye(2004)가 정의한 소프트파워의 구성요소를 기

(2008a: 108).

8) 예컨대 교토의정서와 같은 전지구적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규범, 규칙, 의무의 준수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9) 이와 같은 구조적 차원의 소프트파워로서, 합의된 혹은 강요된 기준은 이를 지키는 국가와 어기는 국가 간에 차별적인 규범력을 발휘한다. 즉 국제기구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투명’ 국가와 ‘부패한’ 국가, 환경적으로 ‘청정한’ 국가와 오염을 일으키는 ‘더러운’ 국가로 분류되는 행위 자체가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쳐 국제사회에서 인정 혹은 비난을 받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구의 분류, 의미 설정, 규범확산 등을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메커니즘이 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Barnett & Finnemore, 1999:710-715).



반으로 이를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작용하는 구조적 차원의 영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개별국가 차원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측정된 개별 국가의 소프트파워 요소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작동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2> 본 연구에서의 소프트파워의 조작적 정의

분석의 차원	내 용	조작화
개별 행위자 차원	사회발전정도, 즉 한 국가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발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속성들을 반영한 지표들.	교육수준, 문맹률, 기대여명, 소득 수준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등
구조적 차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관계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영향력의 문제. 즉 반부패 및 환경원칙 준수여부 등과 같이 다국적 관계에서 규범적 압력 혹은 제도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반영한 지표들.	부패인식지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청정에너지 생산량 등

### 3.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에 미치는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에 대한 가설

#### 1) 연구대상의 선정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작용하는 소프트파워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분석대상 및 분석단위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구조적(제도적 혹은 체제적) 수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분석대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속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개별행위자인 국가를 분석단위로 해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작동 결과로서의 자원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고 있다.

둘째, 국가간 상호작용 관계가 구조화된 장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일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국가간 상호작용 및 관계의 실체가 구조화된다는 것은 환언하

면 글로벌 거버넌스가 관련 국가간의 상호관계에 모종의 질서와 예측가능한 패턴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또 하나의 속성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제도주의에서 논의하는 ‘제도’, 즉 행위자들의 행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게임의 규칙(North, 1990:3)으로서의 속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국가간 유치경쟁을 통해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목하고 있다.<sup>10)</sup>

먼저,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정을 희소한 자원배분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하고, IOC라는 국제기구를 그러한 경쟁의 규칙을 제공하고 게임의 과정을 관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기제의 하나라고 볼 때, 자원배분의 결과가 개별 국가에 귀속되므로 이를 위해 개별국가들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IO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상호작용 및 경쟁과정에는 1894년 근대 올림픽운동(the Olympic Movement)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백여 년의 기간 동안 역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되어 온 성문·불문의 규칙이 존재함으로써 경쟁의 결과에 유치지원국들이 모두 승복하게 된다.<sup>11)</sup> 따라서 IOC를 중심으로 하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절차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집합체로서 다양한 행위자의 행위에 질서를 부여하고 예측가능한 패턴을 형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글로벌 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sup>12)</sup>

10) 그동안 국제정치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은 스포츠와 정치의 ‘상호 무지’(mutual neglect)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매우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Cha, 2009: 1582). 따라서 글로벌 스포츠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영역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관점에 의한 글로벌 스포츠 현상에 대한 설명은 Cha(2009: 1582-1584)를 참조.

11) 이와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국제올림픽체제 하의 행위자(총위와 자원), 구조(제도) 및 관계(행위자간 상호작용의 패턴으로서 경쟁, 갈등 혹은 협력)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happellet(2008a)을 참조.

12)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상호협력 관계를 생성·유지·변화시키는 유·무형의 혹은 공식적·비공식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총합”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구조적(체

## 2) 연구가설의 설정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의 특성은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제도적 안정·지속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 절차와 규칙의 제정, 유지 및 준수 등이 잘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들의 상호작용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IOC위원들의 투표권 행사는 “주권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한 의사결정 (박재영, 1998)”이다. 사적 권위(private authority)<sup>13)</sup>를 행사하는 초국가적 기구인 IOC는 올림픽 개최권을 행사할 국가를 일련의 투표절차에 의해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결과가 투표권 행사자들이 보다 많은 소프트파워를 지닌 후보국을 선호하는 정도에 좌우될 수 있다. 특별히 IOC의 역사와 조직 이념 및 철학 등을 고려할 때 인도주의나 환경보존, 그리고 스포츠 철학 등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는 국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프트파워의 맥락에서 이러한 일개 국가의 좋은 이미지와 평판은 IOC의 지지를 얻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후보 국가들은 자국의 소프트파워 자원들을 활용하여 올림픽의 가치와 이상에 합치

---

제적, 제도적 혹은 거시적) 수준과 행위자(미시적) 수준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에 의하면 “상호협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쟁, 갈등, 협력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군비축소(disarmament)라는 평화적 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한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국 간의 갈등, 국제교역이라는 경제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국간의 경제적 이해분배를 위한 경쟁 및 갈등, 대기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당사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충돌·경합하는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호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 역시 상호협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속에서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올림픽개최지 선정과정을 개별행위자 차원에서는 개최국으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 과정이 존재하면서도, 결국 국제올림픽경기의 개최라는 국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역시 초국가적인 공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의 분석단위를 체계(system)로 본다면, 국제올림픽체제는 근본적으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거버넌스이며,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국가행위자들간 개최경쟁도 종국에는 상호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적 요소가 있는) 이해조정적 메커니즘으로 파악할 수 있다.

13) 사적 권위라는 용어의 개념에 관해서는 Cultler et al.(1999)나 Hall & Biersteker(2002)를 참조.

하는 개최국임을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에서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올림픽운동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로서 올림픽 헌장<sup>14)</sup>에 명시되어 있는 올림피즘(Olympism)<sup>15)</sup>이라는 이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스포츠를 매개로 한 연대, 화해, 조화의 가치, 세계평화, 인류 발전 및 인간 존엄성 실현이라는 올림피즘의 근본 원칙들은 올림픽운동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으로서, 소프트파워의 개념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Lee & Chappelet, 2012: 52).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보편적인 윤리적 원칙에 대한 존중(respect for universal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나아가 세계평화의 실현(world peace in general) 등 올림픽헌장에 명문화되어 있는 올림픽운동의 철학과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일수록, 소프트파워의 수준이 높을 것이고 이러한 국가가 IOC로부터 올림픽 경기 개최지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가설①)**.

Chappelet(2008a)는 올림픽 거버넌스의 원리로서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자율성, 사회적 책임성 등을 들고 있다. 만일 IOC가 올림픽개최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개최국을 선정한다면, 올림피즘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들에 적합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개최신청국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IOC의 고려는 단순히 IOC 위원들의 자발적인 선호라기보다는, 올림픽 역사 속에서 제정되어 온 공식적 규칙들에 의해 요

14) 올림픽헌장은 IOC에 의해 채택된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리와 핵심 가치, 규칙, 부칙을 성문화한 헌법적 성격의 기본 법규로서, 올림픽 무브먼트의 조직, 활동, 운영의 기준이자 IOC의 정관으로서 기능하며, 올림픽대회 개최의 조건 및 올림픽운동의 3대 구성원인 IOC, IFs, NOCs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이들 모두는 올림픽헌장을 준수해야 한다(IOC, 2011: 8).

15) 올림피즘이란 “지·덕·체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합일과 발전을 위한 생활 철학으로서, 스포츠에 문화와 교육을 조화를 통하여 노력의 즐거움과 선행의 교육적 가치와 보편적 기본 윤리에 대한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생활양식의 개척을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 보존에 관한 평화로운 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조화로운 인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IOC, 2011:10)

구되는 측면이 있다(Lee and Chappelet, 2012). 과거에 IOC 위원들로부터 표를 확보하기 위한 개최신청국들간 과열경쟁은 급기야 1998-99년에 로비활동의 위기로 발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IOC 지침(guideline)은 후보국들과 IOC 위원들 및 관련 기관들간의 접촉을 규제하고 있다(IOC, 2005; Toohey and Veal, 2007; Lee and Chappelet, 2012: 53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윤리적 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가설②)**.

환경보호 이슈와 관련하여 1994년에 IOC는 올림픽 이념의 세 번째 축으로서 환경 문제를 채택하였고, 5년 뒤에는 올림픽 운동을 위한 의제 21(Agenda 21 for the Olympic Movement), 즉 일련의 지속가능한 개발 원리들을 하계와 동계 올림픽 경기에 적용한 결과, 현재 올림픽 현장에는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3개 항의 새로운 미션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화되는 올림픽 개최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Chappelet, 2008b; Lee and Chappelet, 2012: 53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가설③)**.

한편, 소프트파워의 효과는 그것이 작용하는 구체적인 문맥과 대상(context and recipient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Nye(2004)의 주장의 연장선 상에서, 스포츠 분야에 특별히 작용하는 소프트파워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림픽경기 등에서 많은 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하는 ‘스포츠강국’의 경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스포츠계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지원국이 스포츠강국일 경우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IOC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가설의 인과 고리는, 특별히 국제스포츠 외교의 장에서 갖는 메달리스트의 후광효과(halo effect)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전현직 메달리스트들이 자국의 국제경기 유치과정에 참여할 경우, 같은 스포츠인으로서 IOC위원들에게 로비 혹은 호소 전략을 펼치기에 용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림픽 경기 성적이 좋은 국가일수록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가설④)**.

### Ⅲ. 연구설계

#### 1. 분석모형 및 변수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Bid\ Result_t = & \beta_0 + \beta_1 * Human\ Development_{t-1} + \beta_2 * Transparency_{t-1} \\ & + \beta_3 * CO_2\ Emissions_{t-1} + \beta_4 * Particulate\ Emissions_{t-1} + \beta_5 * Renewable\ Energy_{t-1} \\ & + \beta_6 * Olympic\ Records_t + \beta_7 * GDP\ per\ capita_{t-1} + \beta_8 * GDP_{t-1} + \beta_9 * GDP\ Growth_{t-1} + \beta_{10} * Military\ Expenditure_{t-1} + \beta_{11} * Continental\ Rotation_t + \epsilon_t \end{aligned}$$

위 모형에서  $i$ 는 개최지 경쟁에 나선 국가들을 나타내고  $t$ 는 IOC에서 개최국을 결정한 해당 연도를 의미한다.<sup>16)</sup> 종속변수인 올림픽 개최지 선정결과(Bid Result)는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다.<sup>17)</sup> 우선, 최종개최지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선정시 1, 탈락시 0을 부여한 더미변수(Host Success)를 사용한다(Feddersen et al., 2008). 둘째로 IOC 순위(IOC Ranks)는  $t$ 년도에 IOC가 결정한 개최후보국들의 최종득표 순위를 나타낸다(Poast, 2007). 셋째로 IOC 투표율(IOC Votes)은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의 투표 과정에서 개최신청국들이 IOC 위원들로부터 획

16)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 값들의 한 해 전년도( $t-1$ ) 값을 사용하는 데, 이것은 IOC가 후보국 가들의 이전 특성들을 고려하여 투표함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Host Success 변수의 경우는 Feddersen et al. (2008)의 연구, IOC Ranks는 Poast (2007)의 연구, 그리고 IOC Votes는 Lee and Chappelet (2012)의 연구를 각각 조각적 정의의 근거로 하고 있다. 이처럼 종속변수를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때 IOC의 개최국에 대한 선호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록 개최에 실패했을지라도 특정 국가가 얼마나 높은 순위를 가졌는지 혹은 얼마만큼 득표를 하였는지는 IOC의 최종 개최지 선정 여부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개최지 선정과정의 IOC의 선호를 분석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득표율을 종속변수로한 IOC Votes 모델에서는 유치신청도시로 지원은 했으나 후보도시로 조차로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한 도시들에 0의 값을 부여하여, 최종 개최 도시 및 후보도시와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속변수의 다양화를 통해 실제로 개최성공 변수 뿐만 아니라 후보국 순위와 득표율에까지 미치는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을 세가지 종속변수들을 각각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포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득한 투표수를 총투표수로 나눈 값이다(Lee and Chappelet, 2012).

설명변수인 소프트파워와 관련하여 기존의 소프트파워 측정관련 연구들은 주관적 지표 혹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sup>18)</sup> 두 종류의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Lee and Chappelet(2012)는 국가의 투명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스포츠 성적의 우수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단위의 지표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1인당 GDP를 포함하지 못한 점과 소프트파워의 사회문화적 측면 지표들을 간과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행위자 및 구조적 영향력을 측정 차원으로 구분하고,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파워의 사회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의 지표들을 새로이 추가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1인당 GDP의 소프트파워 측정 지표로서의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여타의 경제지표인 GDP나 경제성장률이 한 국가의 하드파워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것과는 달리 1인당 GDP의 경우 소프트파워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따라서 기존 소프트파워 논의에서 단순히 경제 관련 요인들이 하드파워적 속성으로 간주되었던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파워의 척도로서 1인당 GDP를 주목하고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가능성<sup>20)</sup> 등을 고려하여,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사회문화적 발전 정도, 윤리적 투명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올림픽 경기 성적 및 1인당 GDP 등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국가의 사회발전도(Human Development)는 단순한 경제지표로는 담아낼

18) 예컨대 Whitney and Shambaugh(2008)는 소프트 파워를 5가지 영역, 즉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인간자본(human capital) 및 정치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서베이 조사로 측정하였다. McClory(2010) 역시 시장/혁신 분야, 문화, 정부, 외교, 교육 등 5가지 차원으로 소프트파워를 구분한 후 주관적 및 객관적 측정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다.

19) 예비분석 결과도 1인당 GDP와 다른 소프트 파워 지표들, 즉 사회의 질 및 웰빙의 수준, 부패,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미세먼지 배출량,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등의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소프트파워 관련 여러 지표들은 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발표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되는 과거 자료들의 확보가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수 없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나 웰빙의 수준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UN의 인간개발지수(HDI)를 이용하였다. 동 지수는 기대여명(Life Expectancy Index), 평균교육연수(Education index), 생활수준(Income Index)을 포함하는 종합 지수(composite index)로서, 0~10 사이의 범위에서 발전단계가 높을수록 1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둘째, 윤리적 투명성(Transparency)은 윤리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나타낸다. 투명성의 대리변수로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조사·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sup>21)</sup>(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활용하며, 이 지수는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는데, 한 국가의 정부가 광범위하게 부패한 상태라면 0의 값을,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10의 값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세 개의 환경관련 지표로 측정한다. 국가의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의 대리 지표로서, CO<sub>2</sub> 배출량(CO<sub>2</sub> Emissions)과 미세먼지 배출량(Particulate Emissions)은 GDP 대비 이산화탄소나 입방미터당 미세먼지 등과 같은 한 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위의 두 지표가 높은 값을 가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통하여 한 국가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측정하였다.<sup>22)</sup>

넷째, 소프트파워 확산 및 공공외교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스포츠(Nye, 2004; McClory, 2010; 정기웅, 2010) 분야와 관련하여, 올림픽 경기 성적(Olympic Records) 변수는 각 국가의 엘리트 운동경기 역량을 나타내며 개최지 선정년도 직전 개최된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의 수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규모까지 고려한 한 국가의 경제력으로서 1인당 GDP의 소프트파워 측정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통계변수로서 하드파워 요인은 후보국가의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포함하고

21) 이 지수는 1995년부터 생산되어 오고 있으므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그 이전 연도의 값들은 Poast(2007)의 방법을 따라 1995년도 자료로 대체(missing value imputation) 하였다.

22) 이러한 데이터들은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와 미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수집하였다.



있다. 먼저 국방비 지출을 통해 각 국가의 군사력을 간접적으로 비교한다.<sup>23)</sup> 한편 GDP와 GDP 성장률은 각각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과와 경제의 영역에서 부각되는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대리변수이다. 전자가 한 국가 전체의 경제적 역량의 총량을 대변한다면, 후자는 그러한 경제력의 시간적 증감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문헌(Poast, 2007; Feddersen et al., 2008)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의 제도적 특성 요인으로서 대륙별 순환 개최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들 수 있다. 동일한 대륙에서 연이어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은 국가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IOC위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IOC의 의사결정에 있어 일종의 불문법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묵시적 규범은 올림픽운동의 정신 및 올림픽경기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IOC의 운영 방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륙별 순환원칙(Continental Rotation)은 후보 국가가 개최지 선정년도 직전의 하계 및 동계올림픽 개최국과 동일한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면, 0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와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은 표3,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및 상관관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

23) 올림픽 개최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권 국가들의 국익 추구라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볼 때, 냉전기에는 불가피하게 동구권, 서구권 그리고 제3세계 등 이념 진영별 투표성향과 남아공의 오랜 인종차별의 영향, 그리고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같은 사건으로 인한 집단거부(boycotts)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Toohey and Veal, 2007). 또한 1980년 구소련 모스크바 올림픽의 보이콧, 1981년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에도 냉전기의 체제경쟁으로 인한 정치적 요인이 큰 영향을 주었다.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국가들이 IOC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Poast, 2007).

<표 3> 분석모형의 변수 및 자료원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자료원
종속변수	Host Success	개최국으로 최종선정되었는지 여부(더미값)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Ranks	IOC에 의해 부여된 최종순위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Votes	IOC로부터 획득한 투표율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설명 변수	소프트 파워		
	Human Development	한 국가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 및 웰빙(well-being)의 수준	Human Development Index, UN
	Transparency	인지된 정부부패 정도(개최지선정해의 전년도 값)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 <sub>2</sub> Emissions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개최지선정해의 전년도 값)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Particulate Emissions	GDP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개최지선정해의 전년도 값)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개최지선정해의 전년도 값)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lympic Records	개최지 선정년 직전 하계·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수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GDP per capita	실질 1인당 GDP(PPP, constant 2005, 개최지선정해의 전년도 값)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통제 변수	하드 파워		
	GDP	실질GDP(PPP, constant 2005, 개최지선정해의 전년도 값)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GDP Growth	실질GDP 성장률(PPP, constant 2005, 개최지선정해의 전년도 값)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Military Expenditure	한 해 국방비 총액(PPP, constant 2005, 개최지선정해의 전년도 값)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제도적 특성	Continental Rotation	개최지 선정년 직전 올림픽 개최국과 다른 대륙에 위치한 국가인지 여부(더미값)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불균형패널자료로서 탈냉전기의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개최경쟁에 지원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sup>24)</sup> 구체적으

24) 독립변수 값 중 결측치가 있는 경우, Nardo et al.(2005)가 제안한 대치(imputation) 기법을 따라 먼저, 결측치를 다른 자료원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찾은 후, 그래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와 가장 인접한 값으로 대체하는 보간법(interpolation)을 활용하였고, 마지막

로 1990년부터 2013년 9월에 있었던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까지 총 16회의 올림픽 개최지 투표결과이다.<sup>25)</sup> 한 국가가 여러 번 지원하였을 경우 각각을 별개의 case로 간주하여, 총 92개의 후보국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결측치 5개를 제외한 87개(하계 올림픽은 50개, 동계 올림픽은 37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sup>26)</sup> 이와 같이 전체 올림픽과 하계 및 동계올림픽으로 구분한 데이터셋을 각각 패널데이터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패널로지트/프로빗 모형, 순위서열로지트 모형, 고정효과와 랜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Baltagi, 2008).<sup>27)</sup> 그리고 고정 및 랜덤효과 모형 중에서는 보다 데이터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Hausman, 1978) 검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일부 소프트파워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중 양방향 절차(bi-directional procedure) 기법을 사용하였다.<sup>28)</sup>

---

단계로 가장 최근의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 25) 1990년을 최초의 시간적 범위로 삼은 이유는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국제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탈냉전기를 1980년 중반에서 시작되어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및 구소련의 해체 등 일련의 연속적인 국제정치의 전환으로 볼 때, 1990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uni-polar system) 하에서는 하드파워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던 냉전기에 비해 소프트파워의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 26) 동계와 하계올림픽을 각각 나누어 분석한 이유로는 첫째, 하계의 경우 동계보다 경기의 규모가 훨씬 크기에 소요되는 자원이 많다는 점, 둘째, 동계의 경우 경기종목의 특성상 산악지형이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함에 따라 환경파괴문제가 민감한 이슈가 되어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함으로써 본 연구는 동계와 하계 개최지 선정간에 나타나는 영향요인의 차이까지 포착하고자 하였다.
- 27) 일반적으로 국가간 패널자료의 분석에는 고정효과 모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OECD국가의 특성 분석과 같은 연구 등에서는 분석대상 모집단이 바로 OECD국가 전체이기 때문이다(민인식·최필선, 2009: 93). 그러나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모집단은 탈냉전기 올림픽개최지 결정(bidding)에 있어서 각각의 case의 집합이다. 하나의 개최지 선정(bidding)이 개별 관측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패널 개체들을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으로 가정할 수 있어 랜덤효과 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분석의 강건성 확인(robustness checks)을 위해 고정 및 랜덤모형을 모두 사용하되 양자 중 적합한 모형을 하우스만 검정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28)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소프트파워 변수를 동시에 모형에 넣지는 않았으나, 하드파워 변수들 전부를 모든 분석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어도 하드파워를 통제된 상태에서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 IV. 분석결과 및 해석

<표 4>와 <표 5>에는 합동(pooled) 올림픽 자료 및 동계와 하계 올림픽 자료를 대상으로 각각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각 유의수준 약10%, 5% 및 1% 이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모형들이 제시되어 있다.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에서 2013년까지 기간의 모든 올림픽 개최지 선정결과(N=87)를 풀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인 올림픽 개최지 선정여부(Host Success)를 좌우하는 설명변수는, 패널프로빗 및 패널로짓모형에서 사회발전도와 대륙별 순환개최 요인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널로짓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패널프로빗모형에서는 군사력이 오히려 개최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IOC 순위(Ranks)인 경우 순위서열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발전도, 투명성, 신재생에너지, 올림픽 성적 변수들이 유의미하였으며, 모두 부호가 음수로서 순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네 가지 소프트파워 변수는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IOC 득표율(Votes)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보다 많은 득표를 한 반면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을수록 개최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0~2013년도의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 결과(N=50)에서는 IOC 순위 및 득표율<sup>29)</sup>과 관련하여 사회발전도, 투명성, 신재생에너지 및 1인당 GDP 변수 값이 클수록,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을수록,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는 음의 값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볼 수 있다.

29) 하우스만 검정 결과, 하계올림픽 자료의 경우는 랜덤효과모형의 기본가정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만을 사용하였다.

셋째, 1991~2011년 기간의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 결과(N=37)에서는 IOC 순위 및 득표율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변수를 제외하고는, 소프트파워와 관련된 모든 설명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륙별 순환개최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드파워 변수는 GDP 성장을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군사력과 GDP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패널회귀분석결과: 합동(pooled) 올림픽 자료, 1990-2013

독립변수 \ 종속변수	Host Success	Host Success	IOC Ranks	IOC Ranks	IOC Votes	IOC Votes
	Coef. (z-stat)	Coef. (z-stat)	Coef. (z-stat)	Coef. (z-stat)	Coef. (t-stat)	Coef. (t-stat)
<i>Military Expenditure</i>	-0.00* (-1.69)	-0.00 (-1.60)	0.00 (0.78)	0.00 (1.56)	-0.00 (-1.44)	-0.00 (-1.13)
<i>GDP</i>	0.00 (1.59)	0.00 (1.44)	-0.00 (-0.83)	-0.00 (-1.39)	-0.00 (-1.36)	-0.00 (-0.52)
<i>GDP Growth</i>	0.10 (1.60)	0.20* (1.72)	-0.01 (-0.28)	-0.07 (-1.30)	0.01 (0.75)	0.02* (1.76)
<i>Human Development</i>	7.84* (1.65)	14.42* (1.67)	-5.02* (-1.71)		0.17 (0.22)	-0.41 (-0.43)
<i>Transparency</i>				-0.28** (-2.39)		
<i>CO<sub>2</sub>Emissions</i>		0.17 (0.10)	-0.42 (-0.62)	0.64 (0.87)		0.21 (0.63)
<i>Particulate Emissions</i>		-0.01 (-0.44)	-0.01 (-0.73)			-0.01** (-2.23)
<i>Renewable energy</i>	0.00 (1.02)	0.00 (1.09)	-0.00* (-1.66)			
<i>Olympic Records</i>	0.03 (1.49)	0.06 (1.31)		-0.05* (-1.66)		0.01 (1.08)
<i>GDP per capita</i>	-0.00 (-1.12)	-0.00 (-1.27)		0.00 (1.39)	0.00*** (3.25)	
<i>Continental Rotation</i>	0.69* (1.73)	1.39* (1.82)	-0.35 (-0.97)	-0.29 (-0.82)	0.01 (0.17)	-0.03 (-0.60)
상수항	-8.84* (-2.17)	-15.83* (-2.05)			-0.59 (-0.79)	0.79 (0.91)
모형 N	패널프로빗 87	패널로짓 87	순위서열로짓 87	순위서열로짓 87	고정효과 87	고정효과 87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표 5> 패널회귀분석 결과: 하계/동계 별도 분석

독립변수 \ 종속변수	하계 올림픽 자료, 1990-2013					동계 올림픽 자료, 1991-2011				
	IOC Ranks	IOC Ranks	IOC Votes	IOC Votes	IOC Votes	IOC Ranks	IOC Ranks	IOC Ranks	IOC Votes	IOC Votes
	Coef. (z-stat)	Coef. (t-stat)	Coef.(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z-stat)	Coef. (z-stat)	Coef. (z-stat)	Coef. (z-stat)	Coef. (z-stat)
<i>Military Expenditure</i>	0.00 (0.05)	-0.00 (-0.29)	-0.00 (-0.43)	-0.00 (-0.14)	0.00 (0.27)	-0.00 (-0.50)	0.00 (1.45)	0.00 (0.86)	-0.00 (-0.49)	-0.00 (-0.26)
<i>GDP</i>	-0.00 (-0.14)	-0.00 (-0.31)	-0.00 (-0.70)	-0.00 (-1.05)	-0.00** (-2.19)	-0.00 (-0.21)	-0.00 (-0.95)	0.00 (0.03)	0.00 (0.60)	0.00 (0.20)
<i>GDP Growth</i>	0.00 (0.05)	0.00 (0.01)	-0.01 (-0.50)	0.00 (0.26)	-0.01 (-0.40)	-0.32 (-1.49)	-0.68* (-1.93)	-0.42* (-1.80)	0.03** (2.47)	0.03*** (2.82)
<i>Human Development</i>	-9.90* (-1.77)			1.13 (0.78)	1.85 (1.36)	-26.46* (-1.92)				
<i>Transparency</i>		0.10* (1.73)						-0.39* (-1.75)		-0.01 (-0.59)
<i>CO<sub>2</sub> Emissions</i>	-1.46 (-1.57)			0.35 (0.85)	0.34 (0.89)		8.22* (1.85)	5.11 (1.11)	-0.29** (-2.44)	-0.06 (-0.30)
<i>Particulate Emissions</i>	-0.01 (-0.97)			-0.01* (-1.85)	-0.01 (-1.07)		0.15** (2.44)		-0.01** (-2.14)	-0.00 (-0.99)
<i>Renewable energy</i>	-0.00 (-1.33)		0.00* (1.78)	0.00 (0.69)	0.00 (0.65)	-0.01 (-1.60)		-0.00 (-0.29)		-0.00 (-0.47)
<i>Olympic Records</i>	0.01 (0.43)	0.01 (0.83)		0.01 (0.83)	0.01 (0.92)		-0.23** (-2.01)	-0.22** (-2.00)	0.01** (2.57)	0.01** (2.44)
<i>GDP per capita</i>	0.00 (0.96)				0.00** (2.19)					0.00* (1.69)
<i>Continental Rotation</i>	0.05 (0.10)	-0.03 (-0.50)	-0.07 (-1.02)	-0.10 (-1.32)	-0.08 (-1.08)	-5.23* (-1.75)	-2.48** (-2.21)	-2.35** (-2.02)	0.05 (0.75)	0.06 (0.85)
상수항		-0.39 (-1.00)	0.12 (0.74)	-0.57 (-0.44)	-2.13 (-1.55)				0.20** (2.19)	-0.17 (-0.58)
모형	순위서 열로짓	순위서 열로짓	고정 효과	고정 효과	고정 효과	순위서 열로짓	순위서 열로짓	순위서 열로짓	랜덤 효과	랜덤 효과
N	50	50	50	50	50	37	37	37	37	37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이상의 추정 결과를 통해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의 개최권 배분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소프트파워의 영향 경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요소로서 한 국가의 높은 사회발전도 혹은 사회적 웰빙이 개최지 선정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① 채택). 이것은 IOC의 미션이 스포츠라는 수단을 문화 및 교육과 조화시켜 인류발전에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는(IOC, 2011: 10) 측면에서, 인간개발이라는 목표는 IOC의 개최권 배분의 정당화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0)</sup> 여기서 인간개발지수로 측정된 국가적 웰빙 내지 삶의 질 등의 요소는 소프트파워 측면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 나라의 높은 투명성은 올림픽 개최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② 채택). 투명성이 높을수록 그 국가는 윤리적 평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면, 한 국가의 높은 윤리적 평판은 IOC로 하여금 올림픽 정신에 걸 맞는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은 아마추어 올림픽 스포츠맨십, 즉 친선, 연대, 페어플레이 등을 강조하면서, 윤리강령(Codes of Ethics), 반도핑규칙(Anti-doping Code) 등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IOC 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국제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등을 설립하는 등 올림픽운동에서의 윤리적 가치 제고 노력들과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 역시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③ 채택). 한 국가가 글로벌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척도로서 오염원 배출량과 같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의 측정지표는 물론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생산량 정도

30) 스포츠를 통한 인류발전이란 본래 IOC 창설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이 의도하였던 것으로서, IOC는 현재 스포츠를 매개로 유엔의 인간 개발프로그램(예컨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등 다양한 국제협력 분야에 간여하고 있다(IOC 공식 웹사이트 www.olympic.org 참조).

를 활용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낮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더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호되는 경향을 설명할 수가 있다. 즉 ‘친환경 올림픽’ 유산(ecological legacy)을 지향하는 공식적인 IOC 현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IOC가 올림픽 개최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바람직한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올림픽 운동의 중요한 가치로 수용함으로써 IOC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조직의 존재근거 및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이슈 역시 보편적 가치 및 윤리성, 정당성 등에 호소함으로써 다른 행위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 파워적 요소로서 기존의 국제관계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보여왔던 하드파워적 요소와는 구별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국가간 올림픽 개최경쟁에 미치는 소프트파워는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보다 많이 보유한 국가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가설④ 채택). 이에 오늘날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자국 대표 선수들의 올림픽 메달획득을 세계정치 무대에서 우월한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Cha, 2009). 한 국가의 올림픽 경기에서의 기록이 높을수록, 이를테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갖는 후광효과 혹은 국제 스포츠 외교계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비활동 등을 통하여 개최국과 관련한 IOC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의 수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1인당 GDP 역시 소프트파워 지표로서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국가 전체의 GDP는 인구나 영토와 같은 국가의 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요소로서 이는 특별히 탈냉전기에 와서는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발언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즉 인구가 많고 영토가 큰 국가는 대개 GDP가 높으며, 이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국제정치적 영향력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통상 및 교역분야의 이슈에 있어서도 GDP 대국들(예컨대 BRICs 등)의 경우는 자국 시장의 규모 크기로 인해 자신들의 이해를 주장하기가 유리하다. 국제협상의 대상



이 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무역 협정이나 협약을 맺음에 있어서 방대한 시장에서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GDP 대국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DP 자체는 국가의 총체적 국력 혹은 군사적·경제적 역량의 크기를 상징하는 변수로서 하드파워적 요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인당 GDP는 보다 미시적으로 그 나라의 부, 나아가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의 가늠자로서 다양한 소프트파워적 요소를 함축하는 변수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소프트파워적 성격을 가지는 변수인 1인당 GDP의 영향력을 새롭게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논점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이다. 자료 분석결과 대륙별 순환원칙이라는 비공식적 제도(불문법적 규칙)가 올림픽 개최권 배분 메커니즘의 작동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이는 종래의 국제관계에서 주된 영향요인이었던 하드파워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차단할 만큼 강력한, 글로벌거버넌스의 작동 원칙이라는 점에서, 소프트파워적 특성과는 별도로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의 제도적 특성의 하나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설계의 측면에서 소프트 및 하드 파워를 동시에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존 많은 사례연구들이 혼란요인의 효과(confounding effects)로 인하여 인과관계의 탐구를 저해하는 오류를 범하는 데 비하여(Lee & Chappelet, 2012: 50), 본 연구는 하드파워 측면을 통제된 상태에서 소프트파워의 진정한 영향력을 포착해낸다는 장점을 지닌다. 예컨대 하드파워가 강한 중국의 경우 왜 2000년 올림픽 개최경쟁에서는 실패하였으나 2008년 올림픽 유치에는 성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1993년에 중국이 호주(시드니)에 밀려 2000년 올림픽개최에 실패한 사례에서는 하드파워 측면에서 중

31)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대륙별 순환 원칙'이 일종의 불문율로서 준수되어 온 사례는 유엔의 의사결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대륙별 안배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출되는 유엔총회 의장이나, 매년 5개국씩 교체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총 10개국)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예는 유엔사무총장의 선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사무총장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3대 우 탄트(미얀마) 사무총장부터-유럽(4대)-미주(5대)-아프리카(6·7대)-아시아(8대) 순으로 대체적으로 대륙별 순환원칙이 지켜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이 우월하였으나, 소프트파워가 더 큰 호주에게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2001년에 있었던 2008년 올림픽 유치경쟁에서 중국(베이징)이 승리한 것은 소프트파워 측면의 지표들이 시간에 따라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93년 유치실패 이후 2001년까지의 기간동안 중국이 하드파워 측면에서 성장함과 동시에 소프트파워 측면의 역량도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치경쟁 당시의 하드파워의 크기보다 오히려 소프트파워의 향상이라는 국가역량의 증가분이 개최국 선정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시간적 차원의 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포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소프트파워 논의는 보다 엄밀한 개념정의 정교한 연구설계 그리고 풍부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국제관계나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한 현상의 분석에 활용될 경우,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개념적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국제스포츠 분야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소프트파워의 존재와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냉전기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관계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는 성공적인 국제관계와 외교활동 전략의 초점이 일국의 소프트파워적 요소를 강화하는 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차원에서 주로 수행되어온 행정학·정책학의 연구주체인 거버넌스의 지평을 초국가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이론 정립을 위해 하나의 의미 있는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하드파워 중심의 국제정치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롭게 소프트파워 측면의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본질을 탐구함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론을 통해 심화된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드파워 및 소프트파워 중 어떤 측면이 세계정치 과정과 결과에 관한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원과 특성 및 작동원리 등을 포착하는 데에 보다 유용한 이론적 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들이 갖는 성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한 거버넌스들이 작동하는 메카니즘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유엔의 경우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분쟁에의 개입여부 결정에 특정 국가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하드파워적 요소가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버넌스가 있는가 하면, 가치 및 윤리적 규범 혹은 정당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 같은 형태도 있고, 또는 인도주의나 시민적 자율성 및 보편적 가치 등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한 글로벌 거버넌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거버넌스 작동메카니즘의 권력적 특성에 착안할 때 권력원천의 성격에 따라 글로벌 하드 거버넌스와 글로벌 소프트 거버넌스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적 차원에 있어서 글로벌 올림픽 거버넌스 사례는 대륙간 순환원칙이라는 불문법적 규범의 존재와 작동방식에 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IOC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 관련 거버넌스는 올림픽 현장에 의거한 공식적 규칙들에 따라 국가간 경쟁이 이루어지며, 개최지 결정 결과에 경쟁국들이 승복하는 등 게임의 룰이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동시에 비공식적인 규범으로서 참여국가들의 대륙별 기회 균등의 원칙과 같은 형평성의 측면이 고려되어 개최권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의 규범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도적 규범의 영향력이 높은 분야로는 예컨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 교역체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가간 군비축소 문제의 경우는 그간 국제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제를 통하여 군축에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군비경쟁(arms race)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와 같은 분야 역시 제도적 규범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선진국 또는 개도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합의된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작동원리 혹은 핵심 영향요인으로서는 권력원천이 하드파워인지 소프트파워인지의 여부와 동시에 제도적 규범의 영향력 강도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글로벌 하드 거버넌스를 하드파워(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경제력 등의 요소)가 주된 권력원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파워의 요소를 압도하는 특성을 보이는 이슈분야의 거버넌스로 정의한다면, 이와는 달리 글로벌 소프트 거버넌스는 소프트파워의 특성이 압도적인 경우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유형분류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 제도적 규범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표 6>.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본 연구는 유형 ③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에 해당된다. 여기 제시된 유형론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정치과정의 핵심 권력원천 차원과 제도적 측면의 규범력 차원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작동원리 및 발전 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 6> 글로벌 거버넌스 유형론

권력의 특성		제도적 특성	
		제도적 규범력의 정도	
		높음	낮음
소프트파워의 상대적 영향력	약함 - 글로벌 하드거버넌스	유형① 예: 국제교역 분야	유형② 예: 군축 문제
	강함 - 글로벌 소프트거버넌스	유형③ 예: 올림픽 개최경쟁	유형④ 예: CO <sub>2</sub> 감축 이슈

## V. 결론: 글로벌 소프트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의의

본 연구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정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소프트파워 요소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작동 메카니즘의 특성 및 권력의 성격에 따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에 대응하는 글로벌 하드 거버넌스와 글로벌 소프트 거버넌스의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냉전기 IOC의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간 패널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결과, 사회발전 정도, 윤리적 투명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올림픽 경기 성적 및 1인당 GDP 등으로 측정된 유치지원국들의 소프트파워 변수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 국가의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표상되는 하드파워 요인들은 경제성장률을 제외하고는, 국방비지출이나 GDP의 경우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IOC라는 국제기구에서 벌어지는 국가간 경쟁의 게임 상황에서 그 게임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은 일국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측면 역시 영향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라는 특정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자원배분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으로서 대륙간 개최지 순환원칙이라는 불문법적 규범이 작용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프트파워의 개념적 확장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다차원적 하위 구성개념으로 재정의 될 때, 보다 설명력 있는 이론적 논의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본 논문은 Nye가 제시한 소프트파워 개념을 보다 정치한 다차원적 측정요소로 분해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행위자 및 구조적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동 개념이 단순히 국가 행위자 단위의 국력 측정의 가능자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제도적·체제적 차원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구성개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많은 실증적 연구가 요청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작동메카니즘은 선형적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증적 분석 및 경험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기여를 위한 귀납적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이론적 논쟁들은 대개 선형적 전제에서 연

역적으로 도출한 가설들에 근거하여 이에 부합한 연구대상을 찾는 것으로서 자기 이론학파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완전히 설명되기 어려운 세계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현상은 역설적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탐구에서 시작하여 귀납적으로 적실성 있는 명제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설명력을 갖춘 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질적 사례연구 중심에서 나아가 양적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양적 연구는 하드파워를 통제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영향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설계상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sup>32)</sup>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특성에 따른 유형을 토대로 하여 환경, 문화, 젠더, 보건 등 다양한 이슈영역들에서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를 군사, 안보, 무역, 금융 등 글로벌 하드 거버넌스와 비교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상배 외. 2009.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한울.  
 김상배. 2009. “스마트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49(4): 7-33.  
 김선혁. 2004. “국제행정과 초국가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8(2): 87-102.

32) 물론 양적 연구도 한계를 가짐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질적연구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최지 선정결과와 분석만이 아니라 개최지 선정기준, 이를 지배한 규범과 관습, 의사결정과정과 절차의 수립 및 진화과정 등의 분석은 질적 연구가 보다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이란 단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Nye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국가의 능력이나 보유한 자원으로 측정되어 그 효과가 고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권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효과가 유동적인 권력으로 인식할 때(김상배, 2009: 10), 양적연구로서 소프트웨어의 측정에 있어서 단순히 계량화 가능한 권력자원들의 보유량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정성적, 관계적 속성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한 것이다.

- 김치욱. 2009.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9(1): 7-36.
- 민인식·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박재영. 1998.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본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제정치논총》 38(2): 43-62.
- 서창록·이연호·곽진영. 2002.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정치학》. 서울: 법문사.
- 유현석. 2005.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와 지구시민사회: WSIS 사례를 통해서 본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9(3): 331-352.
- 정기웅. 2010. “소프트파워와 메가스포츠 이벤트: 도구적 관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50(1): 241-260.
- 조화순. 2007. “글로벌거버넌스의 내재화: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2): 7-28.
- Arne Feddersen, Wolfgang Maennig, Philipp Zimmermann. 2008. “The empirics of key factors in the success of bids for olympic games.” *Revue d'Économie politique* 2008/2 Vol. 118: 171-187.
- Bachrach, Peter, and Morton Baratz. 1963. “Decisions and nondecisions: An analytical frame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September): 632-42.
- Baltagi, Badi H. 2008.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John Wiley & Sons, Inc.
- Barnet, Michael and Duvall, Raymond(ed.). 2005.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net, Michael and Finnemore, Martha. 1999. “The Politics, Power, and Patholog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4(Autumn, 1999): 699-732.
- Benz, Arthur(ed.). 2004. *Governance. Regieren in komplexen Regelsystemen*. Opladen.
- Brown, Graham. 2000. “Emerging Issues in Olympic Sponsorship: Implications for Host Cities.” *Sport Management Review* 3: 71-92.
- Cha, Victor D. 2009. “A Theory of Sport and Polit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6(11): 1581-1610.
- Chappelet, Jean-Loup. 2008a.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the Olympic System: The Governance of World Sport*. Routledge.

- Chappelet, Jean-Loup. 2008b. "Olympic Environmental Concerns as a Legacy of the Winter Ga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1884-1902.
- Cooper, F. Andrew. 1997.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Cutler, Claire A., Haufler, Virginia, Porter, Tony(ed.). 1999. *Private Autho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ingwerth, Klaus and Pattberg, Philipp. 2006. "Global Governance as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Global Governance* 12(2006): 185-203.
- Fraser-Moleketi, Geraldine(ed.). 2005. *The World We Could Win: Administering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Institute of Administrative Sciences. OIS Press.
- Gordenker, L. & T. G. Weiss. 1996. "Pluralizing Global Governance: Analytical Approaches and Dimensions." Weiss and Gordenker(ed.). *NGOs, the UN, and Global Governance*. Boulder: Lynne Rienner.
- Hall, Rodney Bruce and Biersteker, Thomas J. 2002. *The Emergence of Private Authority in Global Govern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usman, Jerry A. 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6(6).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2005. *Rules of Conduct Applicable to all Cities Wishing to Organise the Olympic Games*. Lausanne: IOC.
- Knight, Andy. 1999. "Engineering Space in Global Governance: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volving New Multilateralism." Michael Schechter(ed.). *Future Multilateralism* London: Macmillan for the UN University Press.
- Kroenig, Matthew, McAdam, Melissa and Weber, Steven. 2010. "Taking Soft Power Seriously." *Comparative Strategy*. 29(5): 412-431.
- Lee, Kwang-Hoon and Jean-Loup Chappelet. 2012. "Faster, Higher, "Softly" Stronger: The Impact of Soft Power on the Choice of Olympic Host Cities."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7(3): 47-71.
- Li, Mingjiang. 2009. *Soft Power: China's Emerging Strategy in International Politics*. Lexington Books.
- McAuley, A., & Sutton, W.A. 1999. "In search of a new defender: The threat of ambush marketing in the global sport arena."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arketing and Sponsorship*. 1: 64-86.



- McClory, J. 2010. *The new persuaders: An international ranking of soft power*. The Institute for Government.
- Nardo, M., Saisana, M., Saltelli, A., Tarantola, S., Hoffman, A., Giovannini, E.. 2005.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STD/DOC(2005) 3.
- North, D.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ye, J. 1990.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 Nye, J. 2002.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 2004. *Soft Power: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 Nye, J. 2008a.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March: 94-109.
- Nye, J. 2008b. *The Powers to Lead*.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 2011.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 Poast, Paul D. 2007. "Winning the Bid: Analyzing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s Host City Selec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3(1): 75-95.
- Rittberger, Volker(ed.). 2001. *Global Governance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Rosenau, James. 1995.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A Review of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1, Lynne Rienner Publisher: 13-43.
- Rosenau, James, Czempiel, Ernst-Otto(ed.). 1992.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outs, M. C. 1998. "The Proper Use of Gover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155.
- The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5. *Our Global Neighborhood: Report of the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oohey, Kristine and Veal, Anthony James. 2007. *The Olympic games: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CABI.
- Young, Oran. 1994. *International Governance: Protecting the Environment in a Stateless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Weiss, Thomas G. and Thakur, Ramesh. 2006.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Governance: An Idea and its Prospects*. University of Indiana Press.

Whitney, C. B., & Shambaugh, D. 2008. *Soft power in Asia: Results of a 2008 multinational survey of public opinion*. Chicag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부록]

### 1. 기초 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i>Host Success</i>	92	0.14	0.35	0.00	1.00
<i>IOC Ranks</i>	92	5.11	3.23	1.00	11.00
<i>IOC Votes</i>	92	0.14	0.18	0.00	0.66
<i>GDP</i>	88	1.56E+12	2.36E+12	1.72E+10	1.32E+13
<i>GDP Growth</i>	92	4.10	4.36	-12.57	25.48
<i>GDP per capita</i>	90	21803.43	13325.39	1337.50	77108.00
<i>Human Development</i>	89	0.88	0.09	0.57	0.99
<i>Transparency</i>	88	5.78	2.27	1.90	9.60
<i>CO2Emissions</i>	87	0.48	0.30	0.16	1.73
<i>Particulate Emissions</i>	91	33.30	19.78	12.45	124.84
<i>Renewable energy</i>	91	86.77	113.45	0.00	392.74
<i>Olympic Records</i>	92	10.45	12.74	0.00	56.00
<i>Military Expenditure</i>	87	4.60E+10	1.05E+11	7.38E+08	5.75E+11
<i>Continental Rotation</i>	92	0.43	0.50	0.00	1.00

### 2. 변수간 상관관계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i>Host Success</i>	1.00												
2	<i>IOC Ranks</i>	-0.52	1.00											
3	<i>IOC Votes</i>	0.74	-0.80	1.00										
4	<i>GDP</i>	0.23	-0.25	0.24	1.00									
5	<i>GDP Growth</i>	0.00	0.05	-0.03	-0.15	1.00								
6	<i>GDP per capita</i>	0.04	-0.26	0.10	0.27	0.14	1.00							
7	<i>Human Development</i>	0.11	-0.31	0.15	0.22	-0.38	0.64	1.00						
8	<i>Transparency</i>	0.07	-0.38	0.16	0.19	-0.21	0.65	0.71	1.00					
9	<i>CO2Emissions</i>	0.04	0.08	0.00	0.01	0.22	-0.36	-0.50	-0.40	1.00				
10	<i>Particulate Emissions</i>	-0.04	0.16	-0.01	-0.10	0.28	-0.44	-0.56	-0.48	0.23	1.00			
11	<i>Renewable energy</i>	0.26	-0.21	0.24	0.66	-0.13	0.07	0.08	0.14	0.11	-0.11	1.00		
12	<i>Olympic Records</i>	0.21	-0.16	0.23	0.70	-0.29	0.08	0.11	0.01	0.32	-0.11	0.55	1.00	
13	<i>Military Expenditure</i>	0.18	-0.20	0.18	0.94	-0.13	0.24	0.20	0.17	0.08	-0.10	0.62	0.69	1.00
14	<i>Continental Rotation</i>	0.16	0.18	-0.01	-0.12	-0.11	-0.14	-0.06	-0.15	0.03	0.09	0.06	-0.10	-0.13